



경위관계철(警衛關係綴)

- 생산년도 : 昭和 13年(1938)
- 생산기관 :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무과
- 문서번호 : 88-91
- M/F번호 : 88-0650
- 총 면 수 : 815면

이 문서는 1938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조선총독(朝鮮總督)이나 정무총감(政務總監), 외국 대사 등 중요 인물이나 중요 물건을 경호한 것과 관련한 서류들을 엮은 것이다. 경비 중인 인물의 행동이나 동정(動靜)을 자세히 보고한 문서나 전보(電報) 문서, 경호계획 문서, 경호방식 전달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전보(電報)의 경우 일본어가 타카나로 보내 온 것을 다시 한자나 히라가나로 청서(淸書)한 것이나, 각 인물이 언제 어디를 경과하여, 출발하고 도착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물에 대한 동향과 관련한 보고들은 대부분 필사한 것이 많아서 읽기 힘든 것들도 있다.

여기에 수록된 문건들은 주로 경호를 담당한 각 도(道)나 지방 경찰서장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보고한 것이나 경무국장 이름으로 경호계획을 하달하는 것들이다. 전보나 연락사항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전달한 다른 부서나 직위도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중요한 인물이나 물건이 이동하는 도(道)의 경찰부장이나 경찰서장이 그 경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또 그 경호에서 중앙인 경무국으로부터 면밀한 지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즉 경호에서 중앙과 지방이 면밀히 연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경비규칙」에 따라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 지역의 지리적인 조건이나 계절, 시간대, 인물의 중요성에 따라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당시 경무국장은 미쓰하시(三橋孝一郎)이다. 그는 일본 도쿄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시험 행정과에 합격한 후 내무부에 근무했다가, 1923년에는 오사카부(大阪府) 경찰부 특고과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이후 1929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무과장을 맡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내무성(內務省) 경호국(警護局) 보안과장(保安課長)을 지낸 다음, 1936년에 다시 조선에 들어와서 1942년 6월까지 경무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1938년은 한 해 전인 1937년 7월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에서도 본격적으로 전시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공업 생산이나 유통 부분에서는 벌써 통제가 시작되었으며, 일반 민중들에 대해서도 민족을 말살하려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조선과 인접하고 있는 중국과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중요 인물들에 대한 경비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들어와 이전과는 달리 총독이나 정무총감 등이 이동할 때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날씨에 따라 비행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기차로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록 문건들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미나미(南次郎) 조선총독이다. 미나미는 1904년 러일전쟁 참전 후 관동총독부 육군참모, 육군대학 교관을 지낸 후 중국주둔군 사령관, 참모차장, 조선군 사령관, 육군대신, 관동군 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1936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총독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8·15 해방 후에 A급 전범(戰犯)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는 조선총독 재임기간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일명 지원병제), 창씨개명(創氏改名), 징병제 등을 실시하여 조선인이 ‘완전히 일본인’이 되기를 바랐다.

미나미 총독에 대한 경비는 총독이 지방에 시찰 갈 때나 도쿄 등으로 출장할 때마다 경무국에서 그 경호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내렸다. 일정, 이동 순서는 극비(極秘)로 취급되었으며, 이동하는 지역마다 경비원 수 배치 등을 자세히 정하였다. 총독이 이동하거나 출발할 때마다 전보나 전화로 보고되었으며, 그것이 다시 경무국장에게 보고되었다. 시골지역을 시찰할 경우에는 특히 각 도(道)에서 자동차 연도를 미리 조사하여 토목관구와 협력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총독을 방문한 사람 중 예정에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인물의 이름, 본적, 주소, 경력, 방문 목적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기도 했다. 1938년에 보고된 인물로는 만몽정보(滿蒙情報) 사장인 오오쓰(大津也)가 만주로 향하던 도중에 총독을 방문하였다. 경무국은 총독부에서 총독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총독과 관련된 문건 중 미나미 총독이 도쿄에 가서 천황(天皇)과 만날 때의 상황을 당시 도쿄 특파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그는 “천황폐하에 배알(拜謁)하여 조선통치 및 실시 계획 중인 학생 개혁, 지원병제도 등에 관해 약 1시간에 걸쳐 말씀드리고, 여러 질문에 회답하고 퇴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천황과 조선총독에 관한 이런 상화는 드문 예이다.

또한 사소한 어떤 문제라도 발생하였을 때는 모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1938년 4월 6일에는 총독이 승차하고 있던 열차가 사고로 창동역 근처에서 5분 정도 정차했는데, 그 원인은 부부싸움 때문에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철도 길에 차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상세히 보고된 적도 있었다.

정무총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정무총감은 오오노(大野綠一郎)이다. 그는 1911년에 문관고등시험에 합격하여 내무부 교무과나 사회과, 지방관청에서 근무한 후 1931년 내무성(內務省) 지방국장, 1932년 경시총감(警視總監), 1935년 관동국(關東局) 총장을 역임했다가 1936년에 미나미 총독의 취임과 함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취임하였다. 1941년 미나미의 사직과 함께 사직한 후 일본 귀족원(貴族院) 의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오오노가 도쿄에서 비행기로 경성(京城)에 들어올 때, 오사카부(大阪府)와 후쿠오카현(福岡縣) 경찰부장에게 “경비는 상당히 배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문서를 보내고 있으며, 언제 출발하고 도착할 예정인가를 확인하는 전보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런 경호의 대상은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공무(公務)이기는 하나 정무총감의 부인이 지방에 내려갈 때에도 경호를 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특히 세부적으로 경비에 신경을 쓴 경우는 외국에서 온 손님들의 경우였다. 1938년 4월 이태리에서 사절단이 조선을 방문했는데, 이 때는 사전(事前)에 <이태리 사절단 환영회장 경비에 관한 건> 등 수많은 문서를 각 담당 부서에 보내어 사절단 환영회장의 경비, 신변 호위, 자동차 관련, 호위의 편성표, 행사가 있는 조선총독부 건물 안의 배치도, 10분마다 짜여진 진행표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경비계획을 세웠다. 이 사절단은 이태리의 파시스트들로서 조선을 방문한 것이었으며, 사절단의 정식 명칭은 ‘이국정부(伊國政府) 파견 파시스트 방일(訪日) 친선사절단’이었다.

주지하는 대로 당시 파시스트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독일, 이태리 및 일본은 1940년에 삼국동맹을 맺을 정도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서류 안에는 사절단원의 간략한 경력도 소개되고 있으며, 일정이나 경비계획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그 때마다 새로이 서류를 보내고 있다. 또한 페루 사절단이 왔을 때도 이태리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경비를 했다. 이 경우 경비계획의 치밀성은 같은데, 페루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간단히 설명한 서류도 첨부되어 있다. 이처럼 외국 손님의 경비는 이전과는 다른 면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문서에 수록된 문건들에서 경비 대상으로 나온 인물로는 아마주미(山澄) 시종(侍從) 무관, ‘만주국(滿洲國)’ 산업부 대신 뤼룽환(呂榮煥), 오오타니(大谷)

척무대신(拓務大臣), 만주국 국무총리 대신, 몽고자치정부 수뇌자, 이건(李鍵) 등이 있다. 오오타니 척무대신이나 몽고자치정부 수뇌는 경비원들에게 '안주 값'이라며 수고비를 주었는데, 그것을 받은 경비원이나 관료들은 모두 경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점도 흥미롭다.

경호 대상이 된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도 있었다. 일본 천황의 사진은 조선에 있는 모든 초등·중등학교 등에 '안치(安置)' 하도록 했는데, 그 사진을 지방에까지 보내는 데에도 경비가 요구되었다. 또한 천황에 바칠 햅쌀이나 조를 운반할 때에도, 경작자의 주소나 이름, 운반 순서, 시간 등 자세한 지시가 내려졌다.

요컨대 여기에 수록된 문건들은 경무국이 조선총독, 정무총감, 각국 대사들 등 중요인물의 경호에 관하여 내린 보고나 지시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당시 경무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총독이나 정무총감 같은 식민지 행정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의 활동 등을 엿볼 수 있다.(변은진)